

수능 국어
방법은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2017, 2016(A, B) 수능 국어 문제와 해설

이성호 저

방법은 있다로

풀이한

2017, 2016 수능문제

수능국어
방법은 있다

New Theory & Thinking Method

2017 수능 국어 문제와 해설

이성호 저

방법은 있다로

풀이한

2017 수능문제

2017 수능 국어 문제

홀수형

[1~2]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주에 우리 학교에서는 겸재 정선의 산수화전을 관람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선의 산수화를 감상할 때 도움이 되도록 정선의 ‘관동팔경’을 중심으로 정선의 산수화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동팔경’은 관동 지방을 소재로 한 여덟 점의 산수화로 정선의 작품 세계가 잘 드러난다고 평가받습니다. 산수화 연구가에 따르면, 산수화 중에는 실제 산수가 가질 수 없는 완전한 아름다움이 형상화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아름다움을 산수화의 ‘환’이라고 합니다. 정선의 산수화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선은 실제 자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생략이나 변형의 방식 등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정취를 부각함으로써 ‘환’을 실현했습니다. ‘관동팔경’의 산수화들을 통해 이를 살펴보도록 하죠.

(화면을 보여 주며) 이 그림은 <충석정>입니다. 정선은 수직으로 죽죽 내려 굽는 수직준법을 사용해 돌기둥을 표현하고 돌기둥 위에 있었던 소나무를 생략함으로써 다른 자연물보다 돌기둥을 더욱 부각했습니다. (화면을 전환하며) 이 그림은 <삼일포>입니다. 정선은 그리고자 하는 대상과 같은 높이에서 수평으로 사방을 둘러보며 원근을 표현하는 평원법을 사용하여 호수의 광활함을 부각했습니다.

정선의 산수화가 가진 또 다른 특징은 점경 인물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점경 인물이란 산수화에 등장하는 간단하고 작게 묘사된 인물인데요, 이들은 주로 명승지를 여행하며 자연과 교감하는 친자연적 존재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점경 인물을 정선이 산수화에 형상화한 것은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대상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관동팔경’의 작품 중 <낙산사>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여 주며) 이 그림이 바로 <낙산사>입니다. 이 점들이 보이시나요? (대답을 기다린 후) 네, 잘 안 보이시죠. 이 점처럼 보이는 것들은 일출의 장관을 즐기는 선비들로 이 그림 속의 점경 인물입니다. 이렇게 정선은 자연을 즐기고 있는 점경 인물을 등장시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드러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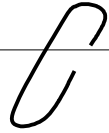
제 발표가 정선의 산수화전을 관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01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시된 시각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참고한 서적들을 열거해야지.
- ② 청중이 발표 대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 특징이 드러난 사례를 시각 자료로 제시해야지.
- ③ 청중이 발표 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전체 발표 내용을 요약하는 시각 자료를 제시하며 마무리해야지.

- ④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들을 수 있도록 발표 순서를 안내하는 시각 자료를 활용하며 발표를 시작해야지.
- ⑤ 청중이 발표 대상의 발전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발표 대상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시각 자료로 제시해야지.

02 다음은 발표를 들은 학생이 ‘정선의 산수화’에 대해 소개하는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발표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선의 산수화의 특징]

- 정선의 산수화에는 실제 산수가 가질 수 없는 아름다움인 ‘환’이 실현되었음. ㉠
- 정선은 자연과 교감하는 친자연적 존재인 점경 인물을 산수화에 등장시킴. ㉡

[‘관동팔경’ 의 산수화들]

- <충석정>에서는 일부의 자연물을 생략해서 돌기둥을 더욱 부각함. ㉢
- <삼일포>에서는 수직준법을 사용하여 호수의 광활함을 드러냄. ㉣
- <낙산사>에서는 일출의 장관을 즐기는 인물을 점경 인물로 형상화했음. ㉤

- ① ㉠ ② ㉡ ③ ㉢ ④ ㉣ ⑤ ㉤

[3~5] 다음은 토론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 우리 학교 동아리 축제에서 동아리 홍보관은 신입 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 효과가 높기 때문에 동아리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홍보관 설치를 위한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지금까지는 학생회가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공모하여 심사한 후 홍보관을 운영할 동아리를 선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존 방식인 ㉠심사 방식 대신 새로운 방식으로 ㉡추첨 방식을 요구하는 동아리들이 많이 있어, 이번 시간에는 ‘동아리 축제에서 홍보관을 운영할 동아리를 선정할 때 추첨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측 입론해 주십시오.

찬성 1 : 동아리 축제에서 홍보관을 운영할 동아리를 선정할 때 추첨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심사 방식의 평가 기준이 타당하지 않고, 평가자 주관에 개입될 수 있어 평가의 신뢰성이 낮아 학생들의 불만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추천 방식은 선정 과정에서 평가자의 견해가 반영될 수 없습니다. 또한 추천 방식으로 한다면 홍보관 운영 동아리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모든 동아리에 균등하게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아리들이 시간과 노력을 불필요하게 들이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반대 2 : 추천 방식이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경우 동아리 홍보관 운영을 더 잘 계획하고 준비한 동아리가 탈락할 수도 있죠. 준비가 덜 된 동아리가 선정된다면 동아리 홍보관 운영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지 않나요?

[A]

찬성 1 : 그렇지 않습니다. 선정된 동아리들은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므로, 홍보관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회자 : 이번에는 반대 측에서 입론해 주십시오.

반대 1 : 홍보관 운영 동아리 선정을 추천 방식으로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기존의 심사 방식은 전체 학생을 대표하는 다수의 평가자가 참여하여 평가자의 주관적 개입을 줄일 수 있고, 평가 기준 역시 매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 왔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 방식은 모든 동아리가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제출할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아리 구성원들이 동아리 축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고민하게 되므로 축제가 내실화될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이번에는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 해 주십시오.

찬성 1 :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평가하는 기준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작년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가 기준 중의 일부가 특정 동아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평가 기준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B]

반대 1 : 그 문제는 평가 기준의 일부를 개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03 위 토론의 입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찬성 1'은 용어의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 ② '찬성 1'은 기존 방식이 유지될 때 발생하는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주장하고 있다.
- ③ '반대 1'은 논제와 관련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반대 1'은 기존 방식의 긍정적 측면을 근거로 삼아 새로운 방식을 반대하고 있다.
- ⑤ '반대 1'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0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상대측이 제시한 사례가 적합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적합한 사례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② [A]는 상대측이 앞서 진술한 내용의 일부를 확인하고,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경우 생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 ③ [B]는 상대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믿을 만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출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④ [B]는 상대측이 언급한 내용의 일부를 확인하고,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평가 기준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⑤ [A]와 [B] 모두 상대측이 인용한 전문가의 설명이 적합한지 따지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05 ㉠과 ㉡에 관한 토론의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찬성 측은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적합한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군.
- ② 찬성 측은 시간과 노력이 불필요하게 드는 ㉠의 문제점을 ㉡이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군.
- ③ 반대 측은 홍보관 운영을 더 잘 계획하고 준비한 동아리가 ㉡으로 인해 탈락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을 옹호하고 있군.
- ④ 반대 측은 동아리가 홍보관 운영 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축제가 내실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을 지지하고 있군.
- ⑤ 반대 측은 ㉡을 도입하면 모든 동아리에게 선정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된다는 점을 들어 ㉡이 ㉠보다 더 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군.

[6~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학생의 작문 계획

- 예상 독자 : 학급 학생들
- 주제 : 새로운 광고 기법에 대한 이해와 비판적 인식 촉구
- 글의 구성
 - 1문단 : 새로운 광고 기법의 등장 배경을 제시해야겠어.
 - 2문단 : 검색 광고에 대해 살펴야겠어.

- 3문단 : 기사형 광고에 대해 살펴야겠어.
- 4문단 : ㉠새로운 광고 기법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이 광고 기법에 대한 매체 이용자들의 비판적 인식을 촉구해야겠어.

초고

[A] 우리는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의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면서 수많은 광고에 노출된다. 이러한 광고는 다양한 매체에서 여러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매체 발달에 따라 매체별 광고 기법도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체 이용자들은 이러한 광고를 불필요한 정보로 판단해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응하여 매체 이용자들이 거부감 없이 광고를 수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광고 기법이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이용자들의 눈길을 끄는 광고 기법으로 검색 광고를 들 수 있다. 검색 광고는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와 함께 검색어와 관련된 다양한 광고가 노출되도록 하는 광고이다. 검색 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기존 인터넷 광고와 달리 특정 대상에게만 노출되지만, 검색 결과와 비슷한 형태로 제시되므로 이용자들에게 마치 유용한 정보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B]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새롭게 사용되는 광고 기법으로 기사형 광고를 들 수 있다. 형식이나 내용이 기사와 확연히 구분되었던 기존 광고와 달리 기사형 광고는 기사처럼 보이는 광고를 말한다. 기사형 광고는 기사처럼 보이기 위해 제목에서 특정 제품명을 드러내지 않으며, 전문가 인터뷰나 연구 자료 인용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 독자의 관심을 끈다. 그러면서 가격, 출시일 등의 제품 정보를 삽입하여 독자의 소비 심리를 자극한다. 하지만 이러한 점 때문에 독자들이 기사형 광고를 기사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특집’, ‘기획’ 등의 표지를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또한 기자가 작성한 글로 착각하지 않도록 글 말미에 ‘글 ○○○ 기자와 같은 표현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광고를 접할 때 매체 이용자들은 이러한 광고 기법들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검색 광고와 기사형 광고는 모두

㉠

06 <보기>는 [A]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떠올린 생각이다. ㉠~㉤가 [A]의 내용에 반영된 순서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 매체 이용자들의 광고 회피 경향에 대응해 새로운 광고 기법이 등장함을 제시해야겠어.

㉡ 다양한 매체에서 여러 유형의 광고가 나타나는 이유를 예상 독자가 궁금해 할 수 있으므로 그 이유를 제시해야겠어.

㉢ 예상 독자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릴 수 있도록 예상 독자들이 광고를 접하고 있는 매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겠어.

㉣ 매체 이용자들이 광고에 대해 보이는 태도를 제시할 필요가 있어.

-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⑤ ㉢ - ㉣ - ㉡ - ㉠

07 [B]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형 광고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 다음 기사형 광고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신문

좋은 물이 장수의 비결

○○ 대학에서는 최근 물과 장수의 관계를 밝힌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국내 장수 마을 사람들의 장수 비결은 그 지역에서 나는 물과 관련이 깊다고 한다. 다른 지역 물에 비해 장수 마을의 물은 유익한 미네랄이 풍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샘물은 미네랄의 함량이 국내 최장수 마을의 물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샘물은 상품화되어 11월 2일 출시된다.

제품 용량 500 ml, 1,000원

- ① ‘물과 장수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을 인용한 것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한 기법의 예로 발표에서 활용할 수 있겠군.
- ② ‘△△샘물’이라는 제품명을 제목에 나타내지 않은 것은, 독자들에게 광고처럼 보이기 위한 기법의 예로 발표에서 활용할 수 있겠군.
- ③ ‘특집’, ‘기획’ 등의 표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독자들이 기사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 사항을 따른 예로 발표에서 활용할 수 있겠군.
- ④ ‘△△샘물’이라는 특정 제품에 대한 출시일과 가격 정보를 제시한 것은, 독자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기법의 예로 발표에서 활용할 수 있겠군.

- ⑤ ‘글 ○○○ 기자와 같은 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독자들이 기자가 작성한 글로 착각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 사항을 따른 예로 발표에서 활용할 수 있겠군.

08 ㉠을 바탕으로 초고의 마지막 문단을 완성하고자 한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매체 이용자들에게 광고를 불필요한 정보로 판단하게 하여 회피하게 한다. 따라서 기업은 매체 이용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비판적으로 점검하며 기업 윤리를 지킬 필요가 있다.
- ② 광고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된다는 점에서 매체 이용자들에게 거부감을 준다. 따라서 매체 이용자들은 주체적으로 광고를 분별할 수 있는 비판적 태도를 기를 필요가 있다.
- ③ 기존 광고에 비해 매체 이용자들의 거부감이 낮은 편이어서 부작용이 적다. 따라서 매체 이용자들은 기존 광고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매체의 정보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 ④ 검색 대상과 제품이 달라 매체 이용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품 구매를 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광고들을 강력히 규제하여 소비자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 ⑤ 광고를 유용한 정보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매체 이용자들에게 착각을 유도한다. 따라서 매체 이용자들은 필요한 정보와 광고를 구별할 수 있는 비판적 안목을 기를 필요가 있다.

[9~10] 다음은 학생이 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가의 꿈을 반드시 이루고 싶은 나는 좋은 글감이 떠오르지 않아 고민 끝에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였다. 선생님께서는 작가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런 ㉠어려움에 겪는다고 하시며 일상 소재를 유심히 관찰하고 이것들의 의미를 떠올리다 보면 좋은 글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푸른 잔디밭이 눈에 ㉡떠었다.

벤치에 앉아 잔디밭을 찬찬히 관찰해 보니 잔디밭 위로 난 길이 눈에 들어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잔디를 밟고 다니며 저 길을 만들었을까 생각하니 밟혀 사라진 잔디가 불쌍해졌다. 그 길을 계속 보다 보니 사람들에게 밟혀 사라진 잔디의 처지가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한때 꿈이 흔들렸던 나의 처지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사라진 잔디가 더 안쓰럽기도 했다.

그런 생각을 하다 그 길을 다시 보니 연두색의 잔디 싹이 자라고 있었다. 사람들에게 밟혀 잔디가 사라진 그 길 위에 잔디는 다시 싹을 틔운 것이었다. 나는 그 잔디 싹에서 끈질긴 생명력을 느꼈다. 길 위에 다시 자라난 저 연두색 잔디 싹도 생명

력을 뿜내며 ㉠푸르고 무성한 잔디로 자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잔디밭에 함께 모여 촘촘히 자라는 잔디를 보니 잔디가 서로를 의지하며 혹독한 시련을 함께 견뎌 왔다는 생각도 들어 대견함을 느꼈다. 생각해 보면 이 푸른 잔디는 바짝 마른 갈색 잔디가 되었다가 추운 겨울을 견디며 다시 푸른 잔디로 살아나는 것이었다. 사람들의 발길과 추운 겨울도 잔디의 생명력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나도 저 잔디처럼 시련에도 꺾이지 않고 꿈을 이루어 나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잔디를 보면서 나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해 가며 꼭 ㉢이루리라 다짐했다.

09 초고의 내용으로 볼 때 학생이 연상을 이끌어 낸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잔디가 밟혀 난 길을 관찰하며 밟혀 사라진 잔디에 대해 연민의 감정을 느꼈다.
- ② 잔디가 밟혀 난 길 위에 잔디 싹이 돋은 것을 관찰하며 잔디가 지닌 생명력을 떠올렸다.
- ③ 잔디밭에 함께 모여 자라는 잔디를 관찰하며 잔디가 혹독한 시련을 함께 견뎌 온 것에 대견함을 느꼈다.
- ④ 잔디밭 위로 난 길을 관찰하며 사람들에게 밟혀 사라진 잔디와 한때 꿈이 흔들렸던 자신의 처지가 비슷함을 떠올렸다.
- ⑤ 바짝 마른 갈색 잔디를 관찰하며 바짝 마른 잔디가 푸른 잔디로 다시 살아나는 모습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조사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어려움’으로 고쳐야겠어.
- ② ㉡ : 어휘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떡잎’으로 고쳐야겠어.
- ③ ㉢ : 어미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푸르지만’으로 고쳐야겠어.
- ④ ㉣ : 접속어의 사용이 부적절하므로 ‘또한’으로 고쳐야겠어.
- ⑤ ㉤ : 필요한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므로 ‘꿈을’을 첨가해야겠어.

11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학 생 : 선생님, 다음 두 문장을 보면 모두 ‘가깝다’가 쓰였는데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1) 우리 집은 학교에서 가깝다.
 (2) 그의 말은 거의 사실에 가깝다.

선생님 : (1)의 ‘가깝다’는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의 거리가 짧음”을 뜻하고, (2)의 ‘가깝다’는 “성질이나 특성이 기준이 되는 것과 비슷함”을 뜻한다. 이는 본래 ㉠공간과 관련된 중심적 의미를 지니던 것이 ㉡추상화되어 주변적 의미도 지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학 생 :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가깝다’는 여러 의미를 지닌 단어군요.
 선생님 : 그렇지. 그래서 ‘가깝다’는 다의어란다.

	㉠	㉡
①	물은 <u>낮은</u> 곳으로 흐른다.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u>낮다</u> .
②	그는 성공할 가능성이 <u>크다</u> .	힘든 만큼 기쁨이 <u>큰</u> 법이다.
③	두 팔을 최대한 <u>넓게</u> 벌렸다.	도로 폭이 <u>넓어서</u> 좋다.
④	내 <u>좁은</u> 소견을 말씀드렸다.	마음이 <u>좁아서</u> 는 곤란하다.
⑤	<u>작은</u>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	우리 학교는 운동장이 <u>작다</u> .

12 <보기>의 (가), (나)를 중심으로 음운 변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국어의 음운 변동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는 음절의 종성과 관련된 음운 변동이 있다.

[가]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거센소리나 된 소리가 올 경우,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된다. 이는 종성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의 종류가 제한됨을 알려 준다.

[나] 또한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경우, 한 자음이 탈락한다. 이는 종성에서 하나의 자음만이 발음될 수 있음을 알려 준다.

- ① ‘꽃힌 [꼬친]’에는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② ‘뭇이 [목씨]’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③ ‘비웃 [비웁]’에는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 ④ ‘얇고 [안코]’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⑤ ‘옳고 [옳꼬]’에는 (가), (나) 모두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있다.

13 <학습 활동>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학습 활동 |

동사는 목적어 필요 여부에 따라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된다. ㉠와 ㉡를 보고, 중세 국어 ‘열다’, ‘홀다’의 타동사, 자동사로서의 쓰임과 이에 대응하는 현대 국어 동사들의 쓰임을 비교하여 그 변화를 탐구해 보자.

㉠	[중세 국어] 큰 <u>ㅁㅅㅂ</u> <u>여러</u>
	[현대 국어] 큰 마음을 <u>열어</u>
㉡	[중세 국어] 自然히 <u>ㅁㅅㅂ</u> <u>여러</u>
	[현대 국어] 자연히 마음이 <u>열리어</u>
㉢	[중세 국어] 번개 구르믈 <u>흐터</u>
	[현대 국어] 번개가 구름을 <u>홀어</u>
㉣	[중세 국어] 散心은 <u>흐튼</u> <u>ㅁㅅㅂ</u> 미라
	[현대 국어] 산심은 <u>홀어진</u> 마음이다.

탐구 결과 : ㉠와 ㉡를 보니, _____ (가)

- ①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타동사로만 쓰인다.
- ②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자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자동사로만 쓰인다.
- ③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로만 쓰인다.
- ④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는 자동사로만 쓰인다.
- ⑤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인다.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서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접미사는 다양한 문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어간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녹다’의 어근 ‘녹-’에 접미사 ‘-이’가 붙어 새로운 어간 ‘녹이-’가 형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녹이다’의 어간 ‘녹이-’는 ‘녹다’의 어간 ‘녹-’과 구별된다. 둘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 붙어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예를 들면, 명사 ‘떡이’나 ‘넓이’

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의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단어이다. 이때 '먹이'와 '넓이'의 '먹'과 '넓'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셋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사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동사 '익다'와 '먹다'의 어근에 각각 접미사 '-히'와 '-이'가 붙어 형성된 '익히다'와 '먹이다'는 '고기를 익히다'와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에서와 같이 사동의 의미를 가진다.

넷째로, ㉡접미사는 타동사에 붙어 피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안다'의 어근 '안-'에 접미사 '-기'가 붙어 형성된 '안기다'는 '아기가 엄마한테 안기다'와 같이 피동의 의미를 가진다. 이때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는 '눅다', '식다'와 같은 자동사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한편, 하나의 접미사가 모든 동사나 형용사에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접미사 '-히'는 '읽다'의 어근 '읽-'에 붙어 '읽히다'를 만들 수 있지만, '살다'의 어근 '살-'에는 붙지 못한다. 어근 '살-'에는 접미사 '-리'가 붙어 '살리다'가 형성된다. 또한 어근과 접미사 사이에는 다른 형태소가 끼어들 수 없다. 가령, 어근 '읽-'과 접미사 '-히' 사이에 '-사'와 같은 선어말 어미가 끼어든 '읽시히'와 같은 것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14 읽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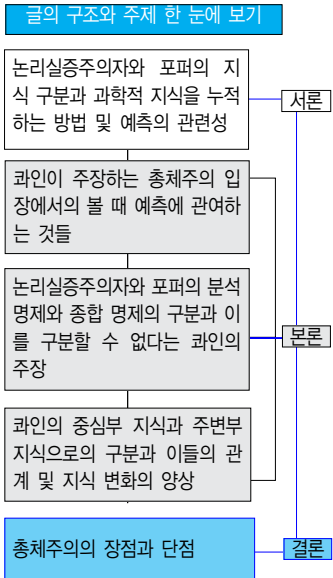
- ㉠ 달콤한 휴식을 위해 시간을 비워 놓았다.
- ㉡ 아주 높이 나는 새라야 멀리 볼 수 있다.
- ㉢ 마을 앞 공터를 놀이 공간으로 조성했다.
- ㉣ 멀리서 찾아온 손님을 위해 차를 끓였다.
- ㉤ 할아버지께서는 오늘 일찍 오시기 힘들다.

- ① ㉠에서 '비워'의 어간은 '시간이 빈다'에서 '비다'의 어간과 같다.
- ② ㉡에서 '높이'는 형용사 '눅다'의 어근 '눅'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명사이다.
- ③ ㉢에서 '놀이'는 명사이므로 '놀이' 속의 '놀'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 ④ ㉣에서 '끓였다'의 어근에 붙은 접미사 '-이'는 모든 동사에 자유롭게 결합한다.
- ⑤ ㉤에서 '오시기'는 '오-'와 '-기' 사이에 다른 형태소가 끼어든 것이므로 명사이다.

15 밑줄 친 부분이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 : 형이 동생을 올렸다.
㉡ : 그는 지구본을 돌렸다.
- ② [㉠ :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 : 우리는 용돈을 남겼다.
- ③ [㉠ : 공책이 가방에 눌렸다.
㉡ : 옷이 못에 걸려 찢겼다.
- ④ [㉠ : 바위 뒤에 동생을 숨겼다.
㉡ : 피곤해서 눈이 자꾸 감겼다.
- ⑤ [㉠ : 나는 종이비행기를 하늘로 날렸다.
㉡ : 그는 소년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중 과학적 지식은 과학적 방법에 의해 누적된다고 주장한다. 가설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그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과인은 가설만 가지고서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a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만 가지고는 b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과인은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c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는 총체주의를 제안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와,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한다. 그러나 과인은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은 동어 반복 명제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분석 명제이다. 그런데 후

자가 분석 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하는 것이 되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따라서 과인은 종합 명제와 구분되는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㉔도달한다.

과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과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과인은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지식의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지 그와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총체주의는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다.”와 같은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지식 구분과 과학적 지식을 누적하는 방법 및 예측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지닌 과인의 총체주의 입장을 대조해 총체주의의 장점과 단점을 밝히고 있다.

 어휘·클리닉

●순환론 : 논증되어야 할 명제를 논증의 근거로 하는 잘못된 논증. 논점 절취의 허위의 하나로, 논증하여야 하는 결론을 잠재적·현재적으로 논증의 전제로 하는 논증 방법이다. 그러므로 결론의 진리와 전제의 진리가 서로 의존하여 논증의 형식을 가지고는 있으나 실제로 논증되지는 않는다. ‘그는 정직하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을 속이지 않기 때문이다.’와 같은 따위이다.

●상정하다 : 어떤 정황을 가정적으로 생각하여 단정하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㉑과 ㉒이 모두 ‘아니요’라고 답변할 질문은?**

- ①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
- ②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
- ③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이 존재하는가?
- ④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
- ⑤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

17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포퍼가 제시한 과학적 방법에 따르면, 예측이 틀리지 않았을 경우보다는 맞을 경우에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된다.
- ② 논리실증주의자에 따르면,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가 분석 명제인 것은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해 보니 모두 미혼의 성인 남성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 ③ 콰인은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이 관찰과 실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 ④ 콰인은 분석 명제가 무엇인지는 동의적 표현이란 무엇인지에 의존하고, 다시 이는 필연성 개념에,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한다고 본다.
- ⑤ 콰인은 어떤 명제에, 의미가 다를 뿐만 아니라 서로 대체할 경우 그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면, 그 명제는 동어 반복 명제라고 본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총체주의의 입장에서 ㉠~㉢에 대해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 때문이라고 단정하지 못하겠군.
- ②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의 어느 부분을 수정하느냐는 실용적 필요에 따라 달라지겠군.
- ③ ㉠는 ㉠와 ㉢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하겠군.
- ④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는 ㉢의 주변부에서 경험과 직접 충돌한 것이라고 하겠군.
- ⑤ ㉠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를 수정하는 방법으로는 ㉠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군.

19 **윗글의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이 경험과 충돌하더라도 그 충돌 때문에 가설이 틀렸다고 할 수 없다.
- ② 논리학 지식이나 수학적 지식이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위치한다고 해서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다.
- ③ 전체 지식은 어떤 결정적인 반박일지라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 대상을 주변부 지식으로 한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 ④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주변부 지식도 수정해야 하겠지만, 주변부 지식을 수정한다고 해서 중심부 지식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해도 중심부 지식 중

에는 주변부 지식들과 종류가 다른 지식이 존재한다.

20 문맥상 ㉠과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잇따른다
- ② 다다른다
- ③ 봉착한다
- ④ 회귀한다
- ⑤ 기인한다

방법은있다 시리즈는 최신 원리와 사고 방법을 제시합니다.

- 방법은있다 국어 **현대시/고전시가편**
- 방법은있다 국어 **현대고전 소설/수필/외곡/시나리오편**
- 방법은있다 국어 **독서편**
- 방법은있다 국어 **문법/화법/작문편**
- 한자 성어 퍼즐, 속담 어휘로

방법은있다 시리즈는 인터넷 상 오르비스 유틸무스 전자책 판매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